

농림수산식품부



“구조적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실 문을 항상 열겠다”

9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취임 후 농어민단체 장관과의 첫 간담회

“농어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실 문을 항상 열고, 농어민단체와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겠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에게 신뢰 받는 농림수산식품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상은 9월 6일 오후 5시30분부터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정복 장관이 농어민단체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밝힌 소견이다. 이날 간담회는 전농, 한농연 등 32개 농어민단체장이 참석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장관, 제1·2차관 등 모든 실국장까지 자리를 함께하였다.

농어업인 단체장 중 제일 나이가 많은 4H 김준기 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농민이 농사짓는 마음으로 농업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이준동 회장은 “농업이 어려울수록 농어민단체와의 소통강화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농민연합 윤요근 회장은 장관 취임 직후 발표한 “쌀 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수립발표를 보면서 신임장 관념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윤 회장은 “앞으로 농촌현장 방문할 때면 성공한 농가뿐만 아니라 실패한 농가도 방문하여 실패 농가의 문제점을 농어업 정책 수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한농연 강우현 회장은 “바람직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

어 주고, 행정과 농어민단체 원활한 소통에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 정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 동지의 연민을 느낌, 어려운 시기를 해결하면 더 많은 가치가 있으므로 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을 요청하였다.

축산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회장은 “정책의 책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농어업이 처한 수입개방 등 각종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통해 유정복 장관은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신뢰 없는 정책은 실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언제 든지 연락 주시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달려가겠다. 우리 농식품부는 농어업인과 넓게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농민연합 김진범 집행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관료가 아닌 정치인 장관의 취임으로 앞으로 농어업인 단체와 소통과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페루 FTA 협상 타결

2009. 3월부터 페루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010. 8. 30일(현지시간) 타결되었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107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민감 품목(202개)에 대해서는 10년 초과 장기 관세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페루측은 쌀과 쌀 관련 가공품(4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농수산물 79개 품목에 대해 10년 초과 장기 관세로 철폐한 반면, 농산물 660개(농산물의 68.8%)와 수산물 156개(수산물의 91.2%)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간 민감 품목인 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페루의 조기 개방 요구가 최대 현안이었으나, 우리측은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SPS 위원회 설치,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된 이후, 금년 11월경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농지를 담보로 안정된 노후생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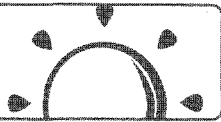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농촌진흥청



이제는 국산 사료용 옥수수 시대

국산 사료용 옥수수 개발·보급으로 수입 품종 대체 성공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우수한 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수입종 사료용 옥수수를 대체해 '국산 사료용 옥수수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7백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사료곡물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입종보다 우수한 품종이 없어 축산농가에서는 국산 사료용 옥수수는 수량이 적고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인식해 왔다.

농진청에서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불신을 없애고 수입종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광평옥', '강다옥', '장다옥' 등 우수한 국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 개발에 성공하였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들 국산 품종이 수량이 뛰어나고 재해에 강해 수입종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모름지기 최고의 조사료 품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부터 3년간 현장실증시험 결과 국산품종이 수입종보다 수량이 많고(13~16%증) 쓰러짐에 강했으며, 2008년 사료용 옥수수 재배농가 반응조사에서 축산농가의 87%가 앞으로 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광평옥'은 옥수수 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병인 검은줄오갈병에 강하고, 수확기까지 푸른 잎이 유지되는 특성인 후기녹체성이 우수해 매년 종자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

욱 증가할 전망이다. '광평옥' 종자보급은 2006년 2톤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72톤을 보급, 36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예시량 34톤이 판매예시 1일 만에 전량 매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농진청은 '광평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 이후에는 150톤까지 종자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료용 옥수수인 '강다옥'과 '장다옥'은 금년 5월부터 이미 통상실시를 통해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농업 다각화정책에 따라 논이용 연중 조사료생산을 위한 동계 맥류+하계 옥수수 재배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조사료의 자급률 제고와 함께 사료작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용 옥수수는 보통 4월 중·하순에 파종해 8월 중순에 태풍을 피해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중 조사료공급을 위해 월동전 청보리 등 맥류를 심어 5월 하순~6월 하순까지 수확하고, 이어 옥수수를 심어 9, 10월에 수확하는 방식이 추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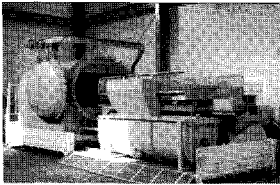
사료용 옥수수를 논에서 ha당 50톤 이상을 생산할 경우 정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의해 ha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벼 재배와 비슷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전체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조사료 자급달성을 위해 '광평옥'보다 더욱 우수한 옥수수 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개발된 국산 사료용 옥수수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정부·민간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폐사가축, 발생현장에서 바로 처리가능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 개발



▲폐사가축처리장비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의 폐사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화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되는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일반 폐사가축 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소각, 매몰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폐사가축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폐사가축 처리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소각 또는 매몰방법은 매몰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소각시 사용되는 연료비용 과다소요, 매연발생, 환경분쟁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폐사가축을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또한 폐사가축처리를 위해 폐사가축 발생농장에서 이동하여 처리함으로써 2차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남아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기존 소각, 매몰법에 국한된 폐사가축 처리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처리장비로 폐사가축 발생지역에 이동 후 현장에서 폐사가축의 위생적 처리후 처리부산물의 퇴비화 과정까지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고온·고압의 스팀방식을 이용, 250℃, 4기압(kg/cm²)으로 3시간 가열 및 진공처리를 통해 폐사가축을 완전 멸균처리 및 응해

시켜 2차 질병전파요인을 차단하였으며,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된 부산물은 장비내 탑재된 교반기를 활용하여 폐사가축의 퇴비화가 가능토록 제작되었다.

본 장비는 5ton 차량 탑재형태로 구성은 폐사가축처리장치와 교반기로 구성되었으며, 1회 처리능력은 소(650kg) 3두, 돼지(100kg) 20두, 닭(2kg) 1천수 정도가 가능하며, 처리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유류는 50L(경유)가 소비되며, 총 처리시간은 6시간(1차 폐사가축처리 3시간, 교반기를 통한 퇴비화 3시간)이 소요된다.

장비에 부착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폐사가축의 장비내 투입이 가능하며, 연료점화, 처리부산물의 입·출입 등 모든 처리과정은 자동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1인으로도 충분히 장비작동이 가능하며, 5톤차량을 활용한 구동방식으로 발생지역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여 발생장소에서 당일 설치 후 당일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처리부산물의 퇴비화과정은 처리부산물과 수분조절제(톱밥)를 활용, 3시간의 교반과정을 통해 생산된 처리부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한 탄질률(C/N) 13 정도의 퇴비성분 수치를 확인하였다.

농촌진흥청 낙농과 강석진 연구사는 “본 장비는 설치 및 처리비용이 기존 소각방식에 비해 95% 이상 절약 가능하며, 증기를 활용한 처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어, 매몰로 인한 지하수오염 대응장비 및 지자체의 폐사가축 처리장비로 활용 가능한 장비이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리승용)은 본 장비를 축산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폐사가축 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사가축 처리부산물의 퇴비화뿐만 아니라 육식동물 및 어류 양식용 사

료, 비료의 원료, 폐사가축 유지를 이용한 공업용 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추가연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동남아·유럽 수출판로 확대 aT, 'NTUC Fair Price' 등과 MOU 체결

우리 농식품이 동남아와 유럽의 수출판로 확대에 나선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6일 싱가포르 소매시장 점유율 1위 유통업체 NTUC Fair Price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8일에는 유럽의 대형 아시아계 수입벤더인 Asia Express Food와 MOU를 체결한다.

NTUC Fair Price는 싱가포르에서 슈퍼마켓, 편의점 등 200개가 넘는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한국 농식품의 동남아 수출확대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동남아 진출이 유망한 한국산 농식품을 적극 발굴해 입점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11월에는 NTUC 15개 매장에서 한국 농식품 종합판촉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Asia Express Food는 네덜란드 농식품 수입기업인 브로워 그룹(Brower Group)의 계열사로, 유럽 전역 3,000여개 식품점에 아시아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aT는 Asia Express Food의 네트워크 및 유통정보 등을 통해 유럽 주류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aT 윤장배 사장은 “동남아와 유럽은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망상품 개

발, 홍보판촉전 개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농식품 대량수출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원, 군장병 식탁 위해 육군과 손잡다 검역원, 육군과 「축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 제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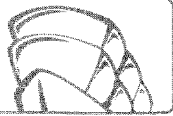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9월 9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축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인사말, 그리고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제휴 협약은 육군에 납품되는 축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활동에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기로 합의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앞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식품의 위생·안전관리, HACCP운용, 미생물·잔류물질검사 등 군 검사관의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군납 축산식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육군과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 시 사람과 가축의 이동통제, 환축의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 육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우리나라는 식품을 얼마나 수입할까요?

2010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수입식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액은 8,434백만달러로 2008년에 비해 14.5% 감소하였으며, 중량은 11,302천톤으로 3.7% 감소하였고, 건수는 255,341건으로 0.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수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중량기준)은 ‘밀가루 제조용 밀’로, 1,980천톤이 수입되어 2008년 2,244천톤에 비해 11%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수입 중량의 17.5%(2008년 19.8%)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488백만달러로 2008년 920백만달러의 53%수준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식품은 식용유지류 등의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하는 원료용 제품으로 1,919천톤이 수입되어 2008년 1,904천톤과 비슷하게 수입되었다. 이는 전체 수입 중량의 1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948백만달러로 2008년 959백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옥수수가 1,444천톤이 수입되어 2008년 1,477천톤과 비슷하였고 이는 전체 수입중량의 12.8%이다. 금액으로는 348백만달러로 2008년 523백만달러에 비해 66%수준이었다. 2008년에는 중량기준으로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료, 밀, 대두, 옥수수 순이었다.

이번 검사연보에서 처음 분석된 유기농 식품은 총 21,293톤, 39,735천달러 수입되었다. 수입 중량에 따른 품목별 수입 순위는 갈색설탕, 바나나, 과·채 가공품 순이었다.

갈색설탕은 3,544톤(2,578천달러) 수입되어 2008년 2,336톤(1,677천달러)에 비해 52%증가하였으며, 두 번째로 바나나는 3,165톤(3,338천달러)로 2008년 2,443톤(2,492천달러)으로 30%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과·채가공품이 1,660톤(6,074천달러)으로 2008년 1,831톤(9936천달러)에 비해 9% 감소하였다. 수입 상대국가 별로 분석(중량기준)해 보면 미국 2,944천톤(26.1%), 호주 2,184천톤(19.3%), 중국 2,158천톤(19.1%) 순이었으며, 수입 금액으로 보면 중국 1,864백만달러(22.1%), 미국 1,797백만달러(21.3%), 호주 767백만달러(9.1%) 순이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발표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본부, 2010년 HPAI 재발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순회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북방철새 도래시기를 맞이하여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방지 교육을 오는 9월 29일 충청남도 지역을 개시로 10월 21일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거 발생지역·철새도래지 등 AI 집중관리지역의 가금농가 및 종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의 AI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AI 예방수칙과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도별 AI 재발방지 순회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 HPAI 재발방지를 위한 순회교육 일정

일자		대상 지역		장소	교육인원
		합계		23회	2,100명
9.29	13:30	충남	아산·천안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100명
9.30	13:30		홍성	홍성군 축산회관	100명
10. 4	13:30	전북	남원·임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150명
10. 5	13:30	충남	공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50명
	13:30	전남	나주·무안	나주시청	100명
10. 6	13:30	전북	진안·장수	장수 국민체육센터	150명
10. 7	13:30	충남	논산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50명
	13:30	전북	익산·군산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150명
10. 8	13:30	전북	정읍·고창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150명
10.11	16:30	경기	포천	양계협회 포천지부	130명
	13:30	경북	상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50명
		전남	곡성·순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60명
10.12	13:30	전북	김제·전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150명
		경북	경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60명
10.13	13:00	경기	양주·포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60명
10.14	09:30	경기	안성·평택	안성축협	60명
	13:30	충북	진천·청원	청원군 농업기술원	70명
		전남	강진·영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60명
		경북	안동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50명
10.15	13:30	충북	음성	음성군 여성회관	120명
	14:30	경남	양산·울산	양산축산종합방역소	50명
10.18	13:30	경기	이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130명
10.21	08:30	강원	춘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50명

